

세계적 양산의 환경적인 고품격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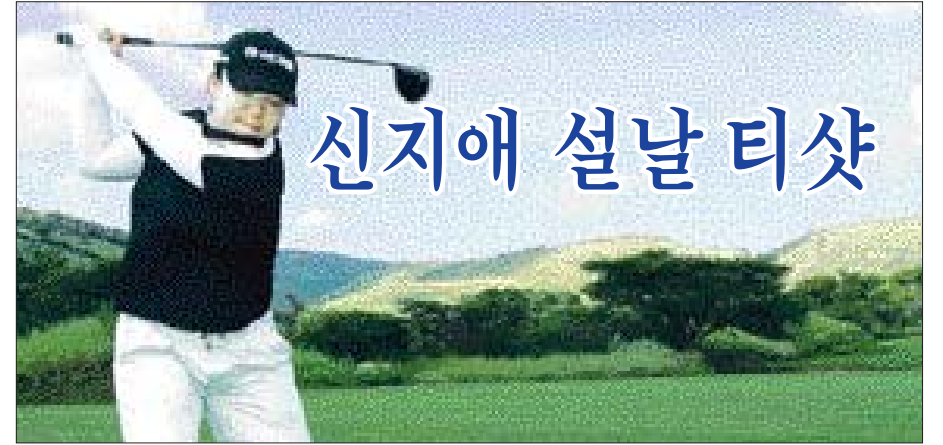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허정무호 오늘 오후 8시 투르크메니스탄과 월드컵 꺾이전

두 번의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 오직 승리만이 태극전사들의 구겨진 자존심을 되찾는 길이다. 첫 출항부터 씩씩한 패배로 뼈저리게 허정무호가 월드컵축구 7회 연속 본선진출을 향한 대항해를 시작한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6일 오후 8시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중앙아시아의 북병 투르크메니스탄과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1차전을 치른다.



유럽여자프로골프 ANZ 레이디스마스터스 출전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MFS호주여자오픈에서 다 잡은 듯 했던 우승을 연장전 끝에 카리 웹(호주)에게 넘겨준 '미소천사' 신지에(20·하이마트)는 답답하게 패배를 받아들였지만 이를 악물었다. 지난 3일 MFS호주여자오픈을 아쉽게 준우승으로 마친 신지에에는 7일부터 호주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의 로열파인스골프장(파 72·5천892m)에서 열린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ANZ레이디스마스터스에 출전한다. ANZ레이디스마스터스에서도 신지에의 목표는 우승. 정상에 오르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은 지난 3일 역전패를 안긴 웹이다. 웹은 작년이 대회에서 신지에를 2타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차지했다. 신지에에 우승을 차지하려면 일본 여자골프의 상징인 미야자토도 제쳐야 한다. 미야자토는 실력에서는 신지에의 적수가 아니지만 일본에서 물러온 보도진과 응원단이 극성이 부담스럽다.

박지성

‘킬러 양박’ ‘골 선물’ 쏜다



지난달 칠레 평가전에서 0-1로 패배 실망감을 안겨줬던 대표팀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인방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설기현(풀럼)-이영표(토트넘)의 가세로 전력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만큼 화끈한 공격 축구로 월드컵 최종예선 진출을 향한 첫 단추를 제대로 꿰겠다는 각오 뿐이다.

허정무호가 상대할 투르크메니스탄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28위로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 수 아래의 팀으로 평가되지만 지난 1998년 12월2일 아시안 게임을 통해 치른 첫 A매치에서 2-3 역전패를 당했던 쓰린 기억이 남아있다.

특히 당시 역전패는 허정무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뒤 처음 맞은 패배라서 이번 대결은 명예회복의 의미도 크다.

허정무 감독은 투르크메니스탄 격파의 선봉장으로 박주영(서울)을 공격의 최전방 꼭짓점으로 박지성과 설기현을 좌우 윙포워드로 배치하는 '4-3-3 전술'을 들고 나올 전망이다.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박지성은 공격형 미드필더보다는 약해진 허정무호의 공격력을 되살리기 위한 왼쪽 윙포워드로 나서 설기현과 함께 투르크메니스탄의 양쪽 허리를 무차별 사냥할 태세다.

중원의 지휘자 역할은 잉글랜드 진출을 확정된 김두현(웨스트브로미치)이 맡고, '진공청소기' 김남일(빛셀고베)이 조용형(제주)과 짝을 이뤄 '더블 볼란테'로 출격할 예정이다.

조용형의 경우 수비형 미드필더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포백(4-back)라인에 가세할 수도 있어 수비라인에 소급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표는 부동의 왼쪽 윙백으로 나서 오른쪽 윙백 오병석(포항)과 함께 그물수비와 더불어 활발한 오버래핑으로 스리톱의 공격력에 힘을 보태게 된다.

긴밀한 호흡이 필요한 중앙 수비는 '강철 체력' 강민수(전북)와 칠레전 풀타임 출전으로 허정무 감독의 신임을 얻은 광대휘(전남)가 맡을 전망이다.

김병지(서울)의 전력이탈로 공백이 생긴 주전 골키퍼 자리는 군사훈련으로 실전 감각이 떨어진 김용대(광주) 대신 칠레전에 투입됐던 정성룡(포항)이 나설 공산이 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박주영



■ 한국 월드컵 본선 도전사

54년 스위스 대회 첫 출전...86년부터 7회 연속 본선행 도전

허정무호가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과제를 안고 항해에 나선다.

한국 축구의 월드컵 본선 도전사는 순탄치 않았다. 월드컵 본선 무대에 첫 선을 보인 것은 1954년 스위스 대회. 하지만 당시 반일감정이 심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선수들을 한국 땅에 불러들일 수 없다며 입국을 불허해 일본에서 두 경기 모두 치러야 했다.

한국은 원정 텃세 속에서도 1승1무(5-1, 2-2)를 거둬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1958년 스웨덴 대회 때는 참가 신청 서류를 보낼하는 바람에 예선에 출전하지 못했고, 1966년 런던 대회 때는 북한에 패할 것을 두려워 해 예선 불참을 선언했다.

1986년 멕시코 대회에 다시 얼굴을 내밀어 1차 예선을 3승1패로 통과한 뒤 2차 예선에서 인도네시아(2승), 최종 예선에서 일본(2승)을 차례로 꺾고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1990년 이탈리아 대회 때는 1차 예선 6전 전승, 최종 예선 3승2무 등 9승2무로 2회 연속 월드컵 출전권을 따냈다.

1994년 미국 대회 예선 때는 바레인과 1차 예선 첫 경기를 0-0으로 비긴 뒤 7연승으로 최종예선에 올랐으나 카타르에서 열린 최종예선에서는 이라크와 2-2, 사우디아라비아 1-1로 비긴 뒤 4차전에서 일본에 0-1로 패하는 등 조한 성적을 거둬 본선 진출이 물건너가는 듯 했다. 하지만 마지막 경기였던 남북대결에서 한국이 3-0으로 이기고 일본이 이라크에 종료 직전 동점골을 내주고 2-2로 비기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본선 입성에 성공했다.

차범근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1998년 프랑스 대회 최종 예선에서는 역대 최고 성적인 6승1무1패를 거둬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2002 한·일 월드컵은 개최국 자격으로 예선을 거치지 않고 본선에 직행했다.

2006 독일 월드컵에서는 1차 예선 몰디브 원정에서 0-0으로 비기는 등 출전을 펼치며 움베르투 코엘루 감독이 중도 퇴진하기도 했다.

맨유 전용 카페 8월 서울 개장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 전용 카페가 올해 8월 서울에 문을 연다.

맨유 F&B 코리아는 5일 강남구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조인식과 회사를 명화하고 "8월 서울 강남 쪽에 '맨유 Restaurant & Bar(R&B)'가 처음으로 오픈

돼 박지성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웨인 루니의 경기를 실감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치곤 맨유 F&B 코리아 대표는 "서울 1호점을 시작으로 2010년 말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25개의 맨유 R&B 카페를 개장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또 "언제 어디서 할 지 분명하지 않지만 기회를 해서 맨유 플레이어와 국내 팬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에 맨유 R&B가 개장하면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콕에 이어 세 번째 매장이 된다.

KLPGA 총상금 100억 시대 활짝

창립 30년을 맞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가 총상금 100억원 시대를 열었다.

KLPGA는 2008년 총상금 103억원에 걸고 28개 대회를 개최하는 시즌 투어 일정을 발표했다.

대회 수로는 작년 22개 대회에서 6개 대회로, 상금액은 작년 74억5천만원에서 30억원 가량 늘어났다.

KLPGA투어 내 양대 투어로 자리잡은 'KB국민은행스타투어'와 'MBC 투어'가 각각 4개와 5개 대회를 개최한다.

상금의 일부를 자신 기금으로 기부하는 8억원 규모의 하이원컵 SBS채리티 여자오픈이 8월에, KLPGA 주관방송사인 J골프와 유럽여자프로골프(LET)가 공동 주관하는 대회도 11월에 열린다.

태권도협 '키크기 체조' 개발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경길)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 태권도장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키크기)체조 개발에 들어간다. 태권도협회는 "15일 협회 사무국에서 하늘스포츠학 클리닉 연구소와 태권도장 준비 및 정리운동 연구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협약식 후 연구소 주관으로 약 3개월간 성장체조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이뤄지게 된다. 이번 협약은 태권도협회의 2008년 도장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수련생들에게 필요한 성장체조를 개발해 일선 태권도장 지도자들에게 보급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태권도협회는 스포츠의학 전문가들이 개

골프·윈도 회원권	
골프 장 시즌회원권	골프 장 시즌회원권
관 주 3,500	승리비 1,700
남관 주 4,400	골드 1,900
클럽900 6,400	도 포함 2,100
상담 문의 1062351-0095	